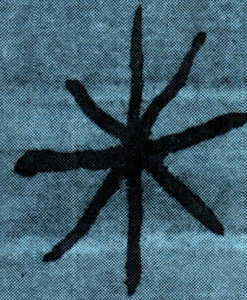




尹東柱詩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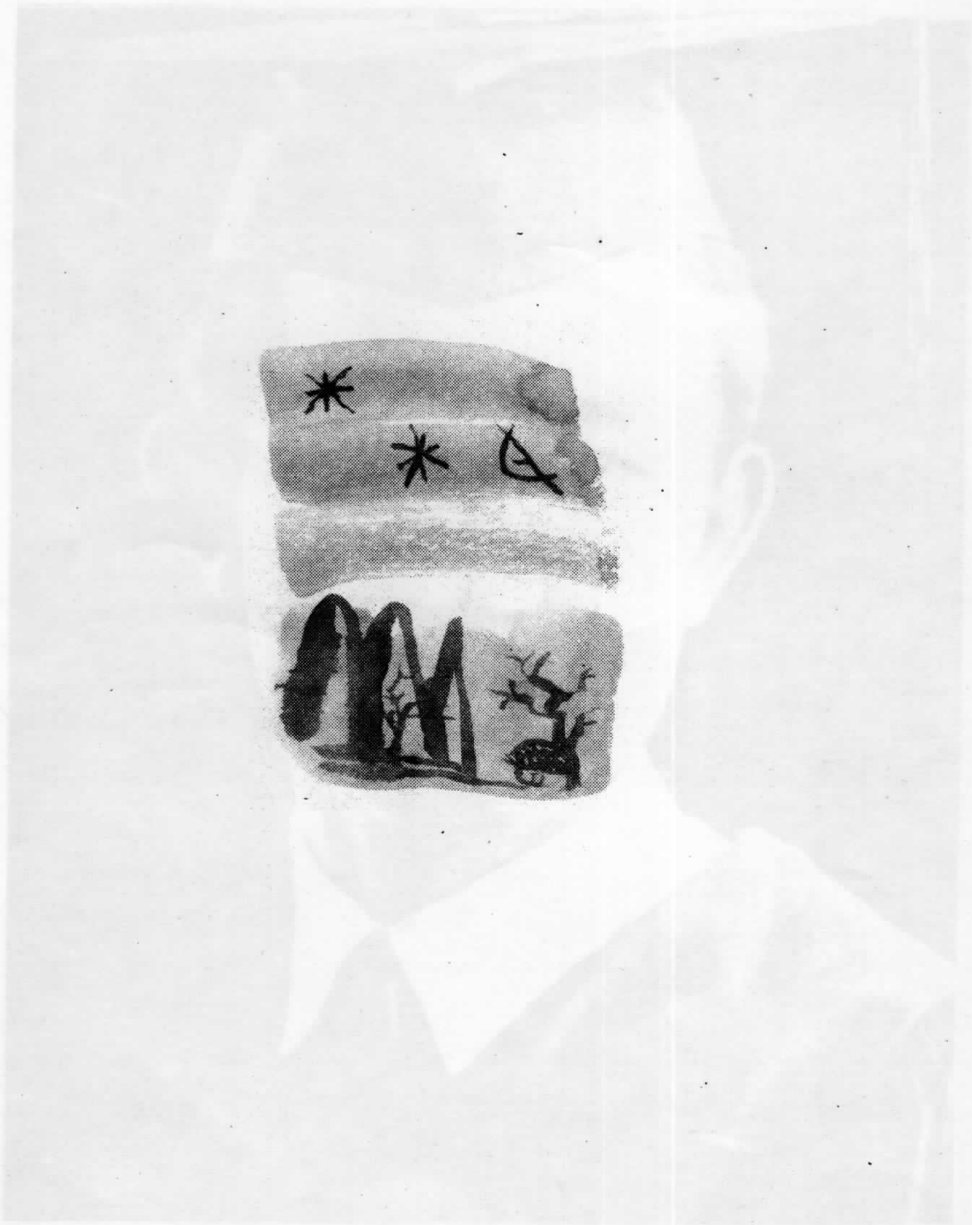
空と風と星と詩



尹東柱詩集

空と風と星と詩

空と風と星と詩



하늘과바람과별과詩

나는 나의 懺悔의 근본은 한 사람에 주리자
 | 滿二十四年一月月은
 무순기년 滿은 가하 날 하
 내일이 나 모레 나 그 어느 날에
 나는 또 한 사람의 懺悔錄을 써야 한다.

懺 悔 錄
 懺 悔 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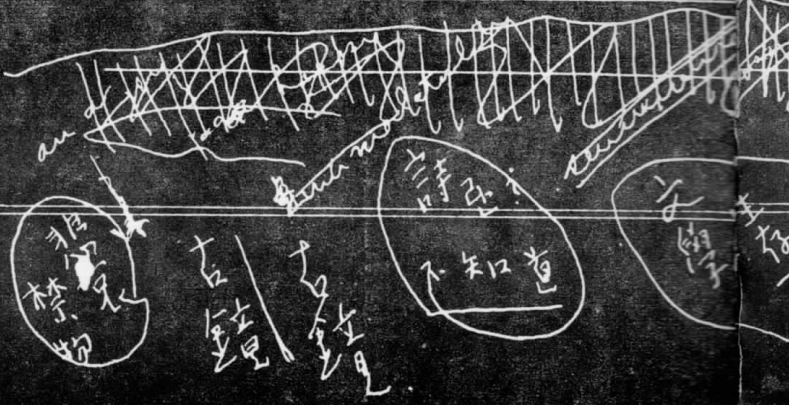
파란 북이 내 옆에
 너 옆에 내가 내 옆에
 이 조 朝의 物이 이
 이 조 조 오기 될 가

~~1942년 1월 24일
 尹東柱의 노트
 1942년 1월 24일
 尹東柱의 노트
 1942년 1월 24일
 尹東柱의 노트~~

漢
 書
 記

내일이야 모레야 그버는 스승이요 날이
 나는 또 한 스승의 隨筆錄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건은 나의
 왜 그런 부끄러운 흰을 해서든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받바닥으로 다져어 보자
 그러면 어는 隕石 밑으로 돌로 거러가는
 슬픈 사람의 뒤모양이
 거울속에서 나타나 온다

一月二十日



解説 ことばの栄光
 あとがき
 目次

目次

序詩	6
自画像	8
少年	10
雪のふる地区	12
帰りみる夜	14
病院	16
新たな道	18
看板のない街	20
太初の朝	23
再び 太初の朝	25
夜明けがくるまで	27
おそろしい時間	29
十字架	31



あとがき	解説	年	春	たやすく書けた詩	流れる街	いとしい追憶	白い影	星をかぞえる夜	道	もうひとつの故郷	眼をとじてゆく	悲しい一族	風が吹き
	ことばの栄光	譜											
	金時鐘												
71	66	64	62	58	56	53	50	45	42	39	37	35	33

装幀 정창권

○発音記号の上の「・」は激音（息を強く出す）

○発音記号の上の「・」は濃音（息をつめて出す）

○「O」は、オを発音する時のように口をすぼめてエと発音する単母音。

○「ü」は、唇に全く力を入れず口をほんの少しだけあけて、舌をウの位置におき声帯を振動させる単母音。

例

凡

あうはき
うの栄光
金制
71 66 64 62 60 58 56 54 52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10 8 6 4 2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尹東柱詩集

(一九四一・一一・一〇)

tjansin, wakodgi, hanuril urei
hudyon puharami asptiril,
ipaseo inin pamanedo
wanun karonhata,
pyaril nornhanun mahnuro
noidin tjagigasan gasil saroghaejigi
korigo namula tjusogin kiyul
korigo jageta.

gwilpamedo pyari parame setjijunde.

序 詩

逝く日まで空を見上げ
一点も恥じないことを、
葉裏に起こる風にも
私は苦しんでいた。
星を歌う心で
すべての去り逝くものを 慈まねば
そして 私に示された道を
歩んでゆこう。

今夜も星が 風に吹かれている。

(一九四一・一一・二〇)

序 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一九四一・一一・二〇〉

Sə: si

tsunnün na/kadzi hanürül urəra
handzəm pukərəmi ə: pki rül,
ipsæe inün paramedo
nanün körowahæta.
pys: rül noræhanün maümüro
mo: dün tʃugəganün gəsü/ saraghæyadzɪ
kürigo nahantə tʃuædzin ki rül
kərsəgayæta.

onü/pamedo pys: ri parame sütʃi unda.

自画像

山すそを巡り 小田おだのそば ポツンとはなれた井戸をひ
とり訪れて そつとのぞいて見ます。

井戸の中には 月が明るく 雲が流れ 空が広がり 青
い風が吹き 秋があります。

そして ひとりの男がいます。
どうしたわけか その男が憎くて帰ります。

帰りながら考えると その男がかわいそうになります。
再び行つてのぞいて見ると 男はそのままいます。

また その男が憎くて帰ります。
帰りながら考えると その男がいとおしくなります。

井戸の中には 月が明るく 雲が流れ 空が広がり 青
い風が吹き 秋があります
追憶のように 男がいます。

自畫像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판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一九三九·九〉

tʃa hwa: saŋ

Sanmoŋgirül tora ronga: ötanumurül holro tʃadzagasən
kam:nhi türyəda pomnida.

umulso:genün tari pako kurümi hürügo hanüri
pyaltʃigo pä:ran parami pu:lgo kaüri isümnida.

kürigo han sanaiga isümnida.

ətʃəndʒi kü sanaiga miwədzə toragamnida.

toragada sængakani kü sanaiga ka:yəpsədzimnida.

toroga türyəda boni sanainün küdæro isümnida.

tasi kü sanaiga miwədzə toragamnida.

toragada sængakani kü sanaiga küriwədzimnida.

umulsogenün tari pako kurümi hürügo hanüri

pyaltʃigo pä:ran parami pu:lgo kaüri iko

tʃuak tʃəram sanaiga isümnida.

少年

あちらこちらから紅葉のような悲しい秋が
はらはら落ちる。紅葉の落ちたあとごと
に春は用意され木々の枝の上に空が
広がっている。静かに空をうかがい見
ようとすると眉に青い絵の具がつく。両
手であたたかい頬をなでて見ると手の
ひらにも青い絵の具がくっついてしま
う。再び手のひらをのぞきこむ。掌の筋
には澄んだ川が流れ、澄んだ川が流
れ、澄んだ川が流れ、川の中には愛のよ
うに悲しい顔、美しい順伊の顔がうつ
る。少年はうっとりとして眼をとじて
みる。それでも澄んだ川は流れ愛のよ
うに悲しい顔、美しい順伊の顔はうつ
る。

(一九三九)

少年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
 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북을 마련해 놓고 나무가
 지우에 하늘이 펼쳐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 보려
 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불을
 쫓아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
 닥을 들여다 본다. 손끝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속에는 사랑처럼 슬픈얼굴—아름다
 운 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少年은 황홀히 눈을 감어 본
 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얼굴—아
 림다운 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一九三九)

So: nyan

yəgitsəgisa tanpūnip katūn sūlpūn kaūri tuktuk tərədʒinda. tan-
 pūnip tərədʒə naontsarimada pomül maryənhæ noko namuka-
 dʒi ue hanūri pyəltʃəiŋa. ka:mani hanürül tūryəda boryə-
 myən nunsə:be pā:ran mulgami tūnda. tu: sonūro tatūtān borül
 süsəbomyən sonpadagedo pā:ran mulgami mudənanda. tasi sonpa-
 dagül tūryəda bonda. songūmenūn malgūn kajmuri hürügo, malgūn
 kajmuri hürügo, kajmulso:genūn sarəŋtʃərəm sūlpūnəlgol—ahūnda-
 un su:nie əgori ərinda. so:nyənün hwaŋhori nunül ka:mə bon-
 da. kürədo malgūn kajmurūn hūlri sarəŋtʃərəm sūlpūnəlgol—a-
 rūndaun su:nie əgorün ərinda.

雪のふる地図

順伊^{スミ}が旅立った朝に音もなく牡丹雪が降って、悲しみのように窓の外にはるか遠くまで拡げられた地図の上に降りつもる。部屋の中にもどって見ても何も無い。壁と天井がとても白く、部屋の中にも雪が降っているのだろうか。本当に君は失ってしまった歴史のようにふわふわと行くものか、旅立つ前に話すことがあったのに手紙を言っても君のゆき先がわからない。どこの街、どこの村、どこの屋根の下、君は私の心の中にのみ残っているものか、君の小さな足あとに雪がしきりに降りつもる。ついてゆく方途もない。雪が溶ければ足あとごとに花が咲く。だから花のすきまに足あとをたずね出で立てば一年十二ヶ月のように私の心には雪が降るだろう。

(一九四一・三・一一)

눈오는 地圖

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살 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나
 려, 슬픈것처럼 窓밖에 아득히 깔린 地圖우에 덮인다.
 房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壁과 天井이 하얗
 다. 房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
 린 歷史처럼 홀홀이 가는것이냐, 떠나기前에 일러들 말
 이 있던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
 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방일,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것이냐, 네 쪼꼬만 발자욱을 눈이 자꼬 내려
 덮여 따라 갈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자리
 마다 꽃이 피리니 꽃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年 열두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二九四一・三・二二

nu:nonün tšido

su:niga tšnandanün aťšime ma:lmotal maüüro hambanunu:ni na-
 ryə, sülpüngaťšəram tšəgbake adü:ki kalrin tšidoue tšəpinda.
 paŋanül torada boaya a:mdo ə:pta. pyəkwa tšəndzəni ha:ya-
 ʔa. paŋanekadzi nu:ni narinün gəsilkə, tšə:ŋmal nənün iləb-
 rin yəkša:ťšəram ho:lho:ri kanüŋəsinya, tšəngidzəne ilədul ma:r-
 i itüŋəsül pə:ndzirül səsədo ne:ga kanün gəsül molra ə-
 nü kəri, ənü maül, ənü tšibunmit, nənün nə maümsə:geman
 nama inüŋəsinya, ne tšəgoman paltšəngül nu:ni tšəko naryə-
 tšəpyə ʔara galsudo ə:pta. nu:ni nogümyən namün paltšəuktšari-
 mada kəťšə pīrini kəťšəiro paltšəngül tšədzə nasəmyən il-
 nyən yəldu:tal hanyəŋ nəmaümenün nu:ni naririra.

帰りみる夜

世間から逃れるように　いま　私は狭い部屋に帰ってきて
灯を消します。灯をつけておくのは　あまりにも疲れるこ
とです。それは昼の延長ですの——

いま　窓を開け空気をいれ替えねばならないのに　外を静
かに見ますと部屋の中のように暗く　たしかに俗な世間の
ようで　雨に打たれてきた道がそのまま雨に濡れています。

一日の鬱憤をぬぐうことなく静かに目を閉じれば　心の中
にただよう声、いま、思想がリングのようにおのずから熟
してゆきます。

돌아와 보는 밤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읍니다. 불을 켜 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롭음은
일이읍니다. 그것은 낮의 延長이윽기에 —

이제 窓을 열어 空氣를 바꾸어 들여야 할텐데 밖을 가
만히 내다 보아야 房안과같이 어두어 꼭 세상같은데 비
를 맞고 오든 길이 그대로 비속에 젖어 있습니다.

하로의 울분을 씻을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
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思想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
어 가읍니다.

〈一九四一·六·六〉

torawa bonün pam

se:sanjürobütä tomadüsi idze næ tšobün page torawa-
burül küomnida. purül kyä tunün gäsün nämuna p̄irorobün
i:riomnida. kügäsün nadze yändzanyiopkie —

idze tšajül yəra kongirül pakua türyaya haltende pakül ka:-
mani næ:da boaya pajangwakati əduə kok se:sanjkaTünde pi-
rül matko odün kiri küdəro piso:ge tšədzə isəomnida.

ha:roe ulbunül sisülba ə:pšə kama:ni nunül ka:mümyən mäüm-
so:güro hürünün sori, idze, sasaji nūngümTšəram tšədzə/ro ig-
ə gaomnida.

病 院

アンズの木陰で顔をおおい、病院の裏庭に横たわって、娘が白衣の下に真っ白な足をなげ出して 日光浴をしている。半日がかたむいても 胸を病んでいるこの娘に会いにくるもの、蝶一匹すらない。悲しげもないアンズの枝には風さえない。

私も わからぬ痛みを久しくこらえて 初めてここへたずねてきた。けれども 年おいた医師は青年の病をわからない。私には病がないと言う。このひどい試練、このひどい疲労、私は怒ることさえできない。

娘はそこから立ちあがり 襟をきちんと合わせて 花壇から金盞花一株を摘み 胸にさして病室へかえる。私は その娘の健康が——いや 私の健康もすみやかに回復することを願いながら その人が寝ていたところに横になる。

病院

살구나무 그들로 얼굴을 가리고, 病院뒤뜰에 누어, 젊은
 女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日光浴
 을 한다. 한나절이 기을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女子
 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
 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病을 모른다.
 나한테는 病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試鍊, 이 지나
 친 疲勞, 나는 성내서는 안된다.

女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花壇에서 金盞
 花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病室안으로 사라진다. 나
 는 그 女子의 健康이 — 아니 내 健康도 速히 回復되
 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든 자리에 누어본다.

〈一九四〇・一一〉

pyə:ŋ wən

salgunamu kūnūlro əlgorül kavigo, pyə:ŋwəntwi:türe, tʃəlmün
 yədzaga hiŋot aræro ha:yan tarirül türənæ: noko ilgwanɣogül
 handa. hannadzəri kiuldorok kasümül əlnündanün i yədzə-
 rül tʃadzəonün i, nabi hanmarido ə:pta. sülpüdɣido anün
 salgunamukadzienün paramtʃotʃa ə:pta.

ŋado morül apümül oræ tʃa:mda tʃəümüro igose tʃadzəwa-
 ta. kürəna næ nülgün isanün tʃəlmünie pyə:ŋül moründa.
 nahantənün pyə:ŋi ə:ptəgo handa. i tʃinatʃin si:ryan, i tʃina-
 tʃin piro, nanün sə:ŋnæ:sənün a:ntönda.

yədzanün tʃariesə irəna otkisül yəmigo hwadənesə kümdzan-
 hwa hanpogirül ta kasüme koko pyə:ŋsiranüro saradzinda. na-
 nün kü yədzəe kə:nganji — ani næ ko:ngando soki höboktö-
 giral paramyə küga nuətün tʃarie nuəbonda.

新たな道

川を渡り 林へ
峠を越え 村へ

きのうもゆき きょうも行こう
私の道 新たな道

タンポポが咲き カササギが飛び
娘がとおり過ぎ 風が起こる

私の道はいつも新たな道
きょうも……あすも……

川を渡り 林へ
峠を越え 村へ

(一九三八・五・一〇)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Særoun kil

næ:rül kə:nnəsə supūro
kogæ:rül nāməsə maülro

ædʒedo kago onüldo kal
nae kil særoun kil

mundülrega pigo ka:tʃiga nalgo
agasiga tʃinago parami i:lgo

nae kirün ændʒena særoun kil
onüldo næildo.....

næ:rül kə:nnəsə supuro
kogæ:rül nāməsə maülro

看板のない街

停車場のプラットホームへ
降りたとき 誰もいなくて、

すべて旅客たちののみ、
旅客のような人々ののみ、

家々ごとに看板がなく
家をさがす心配がなく

赤く

青く

火のような文字もない

街角ごとに

慈愛のような古いガス灯に
火をつけて、

握手をすれば
すべて、善良な人々
すべて、善良な人々

春、夏、秋、冬、
順にめぐり。

(一九四一)

看板 없는 거리

停車場 플랫폼에
나렸을 때 아무도
없어,

kampanəŋnun kəri

tʃəŋtʃadʒəŋ pəlɾæt̚pome
naryəsül tæ a:mudo ə:p̚sə,

다들 손님들뿐,

손님같은 사람들뿐,

집집마다 看板이 없어

집 찾을 근심이 없어

빨강계

파랑계

불 붙는 文字도 없이

모퉁이마다

慈愛로운 燈 瓦斯燈에

불을 허놓고,

손목을 잡으면

다들, 어진사람들

다들, 어진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돌아들고.

ta:dül sonnimdülpun,
sonnimkatün sa:ramdülpun,

tʃiptʃipmada kanp̄ani ə:psə
tʃip tʃadzül künsimi ə:psə

p̄algake
pa:rake
pul punnün mundzado ə:ps̄i

motunimada
tʃæ:roun hæ:n kasüdünge
purül hyə:noko,

sonmogül tʃabümyən
ta:dül, ədzinsa:ramdül
ta:dül, ədzinsa:ramdül

pom, yörüm, kaül, kyəul,
su:nsəro toradülgo.